

연중 제21주일

제 1독서 : 이사 22, 19-23

제 2독서 : 로마 11, 33-36

복 음 : 마태 16, 13-20

순정이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16, 16).

강론

“보신주의 사목”

안용기 신부 / 동산 천주교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들려주는 소문은 하나같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뜬소문들이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의 하나, 구구각색이었다. 예수님 생각에 당신을 몰라보아도 너무 모르는 말들이었다. 심기가 불편하셨을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만족하신 예수님은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천국 열쇠까지 맡기셨다. 그러나 자신의 위선을 진실로 위장하고 오도하는 바리사이파를 향해서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고 독설(?) 아니 의분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대중 앞에서 질타당한 그들은 “제까짓게 무언데 감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죽임을 철저히 받아들여셨다. 그런 후에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모략과 죽임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낱알이 폭로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모함과 죽임을 온 천하에 알리고 매장시켰다.

죽임을 죽음과 부활로 매장하고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는 예수님의 사목. 진화와 적응, 타협과 침묵으로 보신주의가 만능인 자연과 인간사회에 왜 이처럼 긴장과 갈등, 마찰과 분쟁의 사목을 하시고 요구하셨을까? 좋은게 좋다는데 그냥그냥 살으시지 역사 안에 순교한 그 많은 억울한 죽음보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란 증언이 그렇게도 더 중요했던 말인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말을 따라줄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목. 목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사목 방침임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목자는 들려리가 되고 집단이 목자가 되는 목자의 보신주의.

호르는 강 건너 북망산을 바라보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신 주님의 물으심을 다시 한번 되뇌어본다. 그리고 혼신을 다한 한마디, “주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소리

“늑대와 소년과”

감사원의 평화의 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86년 당시 북한 금강산댐의 최대 저수량과 방류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이 과장된 것이었음이 학계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담 비리는 그간 마스크의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5공의 실체가 새삼 노출된 셈이다.

당시의 집권층이 금강산댐의 규모와 그 위험성을 발표 내용대로 믿고 있었다면 단순한 실책이거나 넘겨버릴 수 있었으나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는 가증스런 범죄행위이므로 우물우물 나뉘서는 안될 일이다.

돌이켜보건대 민주화 바람이 불던 그때 정부는 훈치된 마스크를 통해 느닷없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계획과 이 댐을 북한이 악용해 남한에 수공(水功)을 가하면 수도 서울이 물바다로 바뀐다며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는 이 댐에 대응할 평화의 댐을 쌓는다며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코흘리개들의 과자값까지 긁어모아 댐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안보교육장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흉물로 남아 있다.

모금 액수나 투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마땅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정부 발표를 따져보지 않고 과장 보도했던 마스크들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다. **진**

순정이 산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명서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

1.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6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교포가 가장 많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등의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간 알선업자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소개비(1,500-3,000 달러)를 치르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비자 기간을 넘긴 후 불법 체류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음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주로 힘들고 위험스러운 저임금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여권이 고용주에게 맡겨진 채 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 체불 현상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가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권은 물론이고, 지구 가족화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아적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 이민 노동과 산업 노동자로 왔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신학교 건설은 사해 이웃과의 친교와 민족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아적인 자세로 우리 것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경제 동물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국제 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2. 오늘날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은 산업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하루빨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인하고 이들을 착취하는 중간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산업 일선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 테두리 밖에 방치해 장차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도록 버려두기보다는 법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빈 인권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인권 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산재, 임금 체불, 사내 폭행 등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산재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공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 중의 사

고로 신체의 일부 혹은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이들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시의 보상은 생명권의 일부이자 근로권의 기본인 바,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불처리 방침은 시정되어 적합한 산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불처리 및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노동부의 보호 대책(3.30)은 보다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3. 인권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억압 형태는 인간을 한낱 생산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지 값싼 노동 수단으로만 여기거나 불법 체류의 신분을 비인도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생산 과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 체질주의적 사고와 인간 생명 경시적 행위인 임금 체불이나 구타 등은 기본권 침해로써 고용주들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신뢰하여 노동자 자신들은 물론이고 고용자 편에서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정의롭고 신실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4.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진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힘없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성당에서 함께 보편적 형제애를 나누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으며 지상의 순례하는 나그네이니 가족과 고향을 멀리 떠나 나그네된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형제적 유대 속에서 더욱 나은 사회와 인권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1993년 7월 29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동성 연오(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한국 적연와
테라코타·성광 요업
각종 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명자(데레사)
시청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첨단 부엌기구 전시장 에닉스 북부대리점

대단위 급식장 설비, 컴퓨터 설계
린나이 가스 기구 판매
최병화(베드로)
삼례 설악탕 맞은편
☎ (0652)291-0291~2

활티생수

천주교구 미원 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52-5595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잡간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3. "진화론과 구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고, 원숭이는 그보다 못한 동물에서, 거슬러 올라가 그 시초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세포 하나에서 1해(즉 1경의 1만 배, 1조의 1억 배) 개의 세포를 가진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론은 사실인가?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이 여러 상황에 따라 좀더 복잡한 것으로 진보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퇴화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그 당시 사회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종류와 구별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교회의 창조 신앙이 무너지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무의미한 신화가 될 뻔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진화론이 나왔지만 좀더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 주장들도 어디까지나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주와 모든 생물을 포함하여 인류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듯이 그 시작도 모른다. 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의 창조 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의 순간부터 인간이었고, 비록 잘못을 범했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좀더 완전한 인간으로 구원된다는 것이다.

요심이 (1043) 김병오



교구 소식

1. 참사회 : 8월24일(화) 오전10시 교구청.
2. 성서교실(전주지구) 금요반 개강 및 신편입생 입학식 : 8월27일(금) 오전반-10시, 오후반-8시 전동교육관.
3. 초·중·고 교리교사 1차 피정 : 8월28일-29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천호 피정 안내 : 8월30일-31일 주제-농민의 믿음, 강사-정호경 신부, 문의 73-6600.
5.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8월27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서석희 신부.
6. 혼인강좌 : 8월29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7. 창조 질서 보존 사진 공모전 : 내용-인간 생명 보호·공해 고발·자연 보존·우리 농산물·우리 상품 쓰기, 종류-칼라·흑백, 규격-11×14 이상, 자격-제한 없음, 출품료-1인당 1만원(4점 이내), 접수 기간-10월1일~30일, 접수·문의-교구청 별관 4층 평협(85-2935).

※ 축! 영명 :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28일(성아우구스티노) 한정현, 이동, 김봉술 신부님.

전주교구사 연표

이 연표는 전주교구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작성한 것이다. 사료의 객관성과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거를 밝혔다.

김진소 엮음/호남교회사연구소
가격 10,000원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1. 판매기간 : 8.21(토) - 10.10(일)
2. 가격 : (8Kg 1상자당)
특 : 20,000원 대 : 17,000원
중 : 14,000원 소 : 8,000원
3. 구입 문의 : (0658)43-0881.0880
43-4236

알림

천주교 이리 공동묘지에 있는 망인의 연고자를 찾습니다.

- 연락처 : (0653)842-0150
- 묘지관리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식품 용기를 사용합시다

음식을 담을 때 식품에 달라 붙는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으로 싸는 대신 깨끗하고 견고한 뚜껑있는 식품 용기를 구매 사용함으로써 낭비를 줄입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구(九) 죽염

- 판매처 모집
- 구입하실 분 연락주십시오.
- 신경성 위장병, 당뇨, 무좀(습진) 만성 피로 등.

☎ (0658) 547-9970
44-4760
호출기 012-688-099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 8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삼랑진 본원
- 문의 : (0527) 52-4241

피정 안내

- 개인 피정 및 주말 가족 피정, 단체 피정(학생 200명, 성인 150명)
- 휴식 및 평화의 마을에서 현장 체험을 원하는 분 환영
- 문의 : 오순절 평화의 마을 (0527) 52-424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주일헌금과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1. 중·고 교리교사회 임원 개편: 회장-현선미(마리아) 부회장-이상준(바오로) 총무-김현아(세레나)
 2. 민수녀님 세미나 참가: 25~28일.
 3. 울뜨레아 आयुही: 오늘, 공식미사 후, 사선대, 회비-5,000원
 4. 장우회 आयुही: 23일 변산반도, 오전 9시, 노송신원 앞에서 출발.
 5. 금주 모임: ①제대회(24일, 어머니미사 후) ②빈첸시오(26일, 전 10시30분)
 6. 금주 청소: 중노18, 20반.
 7. 차주 청소: 중노21, 22반.
- ☐ 지난주 봉헌금: 1,015,080원 ☐ 교무금: 749,000원
☐ 차 헌금: 377,87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예비자 교리: 29일 공식미사 후-수녀님반, 9월2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2. 병자 봉성체: 27일(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세례: 28일 오후 7시.
 4. 회합: ①제대회-26일 오전 10:30 ②빈첸시오회-28일 오전 10시
-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씨, 독서-이준철 씨 부부
봉헌-김홍현 씨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씨, 독서-육경수 씨 부부
봉헌-김중승 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639,160원 ☐ 교무금: 951,2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욱

- ◎ 오늘은 여왕이신 동정 성마리아 축일.
1. 모임: ①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성모회-다음주일.
 2. 다음주일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일.
 3. 제대꽃 봉헌: 평화의 모후-3만원.
 4. 주일미사 참여와 정성스런 기도과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5. 주일미사를 끝까지 맡고 미사 시작 20분 전에성당에 옵시다.
 6.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유순천 ②김연순
봉헌-한동욱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433,130원 ☐ 교무금: 40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연중 제 21주일!
1. 반장회: 8월2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9월1일(수) 저녁미사 후.
 3. 자모회: 9월1일(수) 오전 10시30분.
 4. 교무금은 신자편 자의 의무금입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님께 많은 은혜 청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985,15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연중 제 21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 단합대회.
 2. 주일학교 개강: 28일(토) 오후 3시 교리, 4시 미사.
 3. 첫명성체 교리 시작: 8월 24일 오후 5시(3주간)
 4. 구역, 반장, 자모회, 성가대 성지순례: 9월2일(목) 신청바람.
 5. 청소봉사: 2구역 4반, 5반.
- ☐ 지난주 봉헌금: 712,000원 ☐ 교무금: 54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금주: 성마리아 꼬미시용(후 2시)
 2. 명화 상영: 25일 저녁미사 후 "러브 스토리" 3. 성지회: 27일(금) 오후 8시.
 4. 차주: 혼인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5. 전기 승압공사(유치원, 회의실, 사제관, 수녀원)착수: 본당 전원 모두 220V로 교체합니다.
 6. 정원등(주물) 2분 설치: 유치원 원아 일동 봉헌(240만원)
 7. 멀치액젓 판매: 주일마다(성가정회)
 8. 고령 전례안내: ①교백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 번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병자 봉성체-매월 첫금요일 오후 2시 ④유아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⑤차량 축성식-홀수달 마지막주일 공식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2,333,8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1. 성지순례: 9월5일 해미→솔의 전 6시출발 오늘까지 접수. 회비 성인-1만원. 중·고생 및 청년회원-오천원.
 2. 병자 봉성체: 26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3. 박모니카 수녀님 영명축일: 27일 영육간 건강을 빕니다.
 4. 신학생 귀고: 24일 방학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 설서교실 개강(편입): 27일 전 10시, 후 7시30분 진동성당.
 6. 주일학교 개학: 28일 후 2시30분 학부모님들의 관심바람.
 7. 농민을 위한 피정: 30일~31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8. 모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성소후원회-25일 어머니 미사 후, 성가대-26일 전 10시. 9. 교무금 납부주일: 29일. 10. 예언자의 모후Pr 100차 야외미사: 23일 전 11시 구이.
- ☐ 지난주 봉헌금: 1,375,630원 ☐ 교무금: 1,021,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꾸리아: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25일(수) 저녁-황실, 26일(목) 오전-거성화산
3. 중고생 산간학교를 마치면서 감사드립니다.
4. 사무장 휴가: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 수녀원, 사제관, 화합실을 위한 신입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전례: 김희숙, 손금구, 독서·봉헌-함영순, 서지석, 차주 전례: 이완자, 강희연, 독서·봉헌-송미옥, 방경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 21주일입니다.
1. 꾸리아: 8월25일(수) 오전 10시
 2. 유아세례: 8월29일(일) 오후 4시
 3. 구약성서반 모임(보좌신부님): 9월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정찬합니다: 지난 20일 학생들의 효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학생들과 선생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5. 청년성가대 및 어머니성가대 단원을 연중 모집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332,870원 ☐ 교무금: 1,520,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익 도

1. 모임안내: ①반석회-공식미사 후 ②반회장 준비모임-27일(금) 10시미사 후.
 2. 성지순례: 9월12일 7시 출발, 성인 7,000원, 학생 5,000원
 3. 전신자본은 예비자 1인씩 인도합니다. 입교식-10월5일(화)
 4. 초등부 교리: 오후 2시30분, 4시미사-8월28일부터 개학. 차주 모임-사목회, 요셉회, 여성분과회.
 5. 청소봉사: 2구역 4반, 5반.
- 금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①김홍준 ②홍봉아
봉헌안내-매종교 부부, 김대송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강인성, 독서①심학섭 ②김정희
봉헌안내-엄승동 부부, 정병태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548,000원 ☐ 교무금: 894,000원